

영암 멜론 '얼스 그랑프리'

'흰가루병'에 강해 무농약으로 재배
품질 뛰어나 농업인·소비자에 각광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6일 영암 현 장실증 시범단지에서 신품종 멜론 '얼스 그랑프리' 현장 평가회를 갖는다.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 환경에 적합한 내병성의 고품질 신품종 육성사업을 시작 한지 4년만에 '얼스 그랑프리' 품종을 육성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우량 신품종 '얼스 그랑프리'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영암에 현장실증 시범단지 1.1ha를 조성했다. '얼스 그랑프리'는 현재 국내육성 품종으로는 최초로 농가에 5ha가 보급돼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

며, 앞으로 영암지역을 중심으로 30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얼스 그랑프리' 품종은 기존 품종에 비해 흰가루병에 강해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고 네트형성이 좋고 당도가 높으며 품질이 뛰어나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흰가루병에 강해 방제하는데 소요되는 농약값이 ha당 112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도 및 품질의 균일성이 높아 생산된 모든 과일은 100% 상용화(생식용 96%·가공용 4%)가 가능하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얼스 그랑프리'



'황금울릉'

고품질
신품종

강진 '황금울릉'

100일이면 재배 수확... 이모작 가능
10a당 250kg으로 일반콩 수준 육박

강진군이 100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신품종 울릉을 확대 재배한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생육 기간이 짧아 추석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 울릉 4품종(새울·한울·참울·황금울)을 도입해 신전명 용화리 일대 3000㎡에 실증 재배에 나섰다. 울릉은 10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일반 품종보다 생육 기간이 한 달 정도 빠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마늘 등 겨울작물과 2모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경지이용률 향상과 농가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울릉 품종은 10a당 수확량이

200kg으로 일반 콩 수확량의 7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올해 선발한 '황금울릉' 등은 일반 콩의 90% 수준인 10a당 250kg의 높은 수확량을 보이고 품질도 좋아 마늘·양파 등과 이모작을 주로 하는 신전명 일대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올해 심은 울릉 품종을 오는 9월 20일께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자체 증식 후 본격적으로 관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h@



왜가리의 자식사랑법

4일 강진군 울천면 왜가리 서식지에서 어미 왜가리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왜가리는 눈에서 뒷머리까지 이어지는 검은 멍기띠가 특징이다. <강진군 제공>

■ 새얼굴

“현장 중심 치안서비스에 역점”

김성열 장흥경찰서장



“진절과 봉사를 신조로 대민 치안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경찰의 신뢰도를 얻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일 취임한 김성열(53) 장흥경찰서장은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여행성 범죄와 외지인의 교통안내 등 교통치안에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서장은 “고향이란 부담도 있지만 지역 치안책임자로서 기

분과 원칙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현장과 주민의 중심 편에서 치안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출신인 김 서장은 지난 1982년 순경으로 장흥경찰에서 출발해 불굴의 노력으로 지난 1월에 총경으로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희기자 kykim@

장성군 국·도비 5396억 유치 눈길

민선 5기 2년간... 농협 호남권물류센터 등 51개 사업

장성군이 민선 5기 2년동안 국·도비 5000억원을 유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2년 동안 902억원 규모의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 유치를 비롯해 306억원 규모의 레이저산업 지원센터 등 급속증진한 51개 국·도비 사업 5396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280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46억원 ▲황룡강 생태하천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 213억

원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200억원 ▲월평 하수관거 정비사업 167억원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147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30억원 등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해당 부처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비사업 공모에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으로 대거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양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

한 국고지원 등 예산유치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 군의 재정규모도 민선 5기 들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민선 5기 출범 당시 2643억원이던 군 예산은 올해 1회 추경 기준 3296억원으로 집계돼 25%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비 유치를 통해 지역의 미래성장 이룰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부흥 및 주민 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제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희기자 yongho@

전북

전북 초·중학교 2학기부터 친환경급식

19만4000여명 혜택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전북지역 초·중학생의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된다. 전북도는 “8월부터 학생건강을 위해 일부 음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초·중학생

19만4000여명이 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양파, 오이, 상추 등 15종 안팎이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은 1인당(한 끼 기준) 100~130원꼴.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전북도, 일선 시군, 도교육청이 함께 부담한다. 이들 기관의 총 부담액은 19억5000여만원이다./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춘향테마파크’ 관광명소로 우뚝

유료관광객 60% 증가... ‘춘향년’ 세트·전통체험 등 관광객 인기

남원 관한루원 인근에 자리한 ‘춘향테마파크’ 유료관광객이 지난해보다 60%이상 증가하는 등 관광명소로 재도약하고 있다. 춘향 테마파크는 향토 박물관과 심수관 도예전시관 등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 촬영세트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남원시는 지난 5월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해 전통문화 페스티벌을 열어 동헌재판과 국악공연, 장구배우기(사진), 전통의복 체험, 화매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말 현재까지 유료 입장객이 2만3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8300



명(63.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입장료 수입도 32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늘어났다. 시는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전국 제기 차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들에 전통문화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주호 남원시 문화관광 과장은 “춘향 테마파크에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찾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김제, 민간육종단지로 종자수출 허브 부상

김제시 백산면에 조성되는 ‘민간육종 연구단지’가 세계 종자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은모)는 최근 도청 세미나실에서 ‘종자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이날 한국은행은 “3개월에 걸친 조사연구 결과 종자산업이 미래 농업의 핵심 부품산업으로 ‘농업의 반도체’와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 새얼굴

“국민에 도움되는 산림행정 펼칠터”

김성륜 서부지방산림청장



“투명하고 깨끗한 산림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신임 김성륜(57)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북, 경남 일부의 광활한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서부 산림청을 최고의 지방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숲의 주인이 국민인 만큼 숲을 기능에 맞게 잘 가꾸어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출신인 김 청장은 1974년 산림청 중부영림서를 시작으로 행정부처 담당관, 산림환경 보호과장, 국유림 관리과장 등을 역임한 산림행정 전문가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녹차밭 일손돕기 ‘구슬땀’

정읍시청 지원개발과 직원들이 최근 정읍시 덕천면 녹차밭을 찾아 가지치기 작업 등 일손돕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ks@

단신

전주시, 27~29일 선비의 삶·전통 캠프

전주시는 27~29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비의 삶과 전통사상을 배우는 캠프를 개최한다. 캠프에서는 퇴계의 ‘성학십도’, 율곡의 ‘격몽요결’, 다산의 ‘목민심서’를 통해 선비들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가르친다. 선비들이 마음을 수양하는 법과 예의범절을 설명하고 판소리, 붓글씨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중학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문의는 전주시 전통문화연구원(063-288-9242)으로 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정읍시 ‘내고장 상품 애용’ 범시민 운동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고장 상품 애용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1차로 정읍시 판매 생산제품을 ‘내고장 상품’으로 정했으나, 시 판매 생산 제품이 없을 경우 2차로 도내 생산제품을 내고장 상품으로 정하고 범시민적 애용 운동으로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 실천사항으로 ▲연제내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전통시장, 골목슈퍼, 나들가게 이용하기 ▲외지 행사시 내고장 상품 사기 ▲각종 회사·모임 지역 내에서 개최하기 등을 정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경찰, 학교폭력 근절 대책회의

남원경찰서(서장 방준원)는 4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하반기 학교폭력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남원경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름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탈선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학교측 인권교사와의 협조를 통해 방학전 면담 실시 및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활동서 생활안전과장은 “집중상담과 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수시 용자지원

순창군은 새농촌 육성기금 수시 용자지원을 통해 FTA 등 시장 개방과 고유가로 자재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회사 법인으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8000만원 범위내에서 1.5%의 저금리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